

보도일시 (인터넷) 2024. 11. 19.(화) 11:00,
(지면) 2024. 11. 20.(수) 조간

배포 2024. 11. 19.(화) 06:00

한국 수산식품,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 해수부-수협, 11월 20일 파리 무역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유럽 수출 거점 마련으로 중소 수산기업 지원강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우리 수산식품 기업의 유럽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11월 20일(수)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무역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그동안 우리 수산식품 수출은 미·중·일 3개국에 집중된 구조*였으나, 이번 파리 무역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수출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 수출 상위국 비중(23): 중국(29%), 일본(20%), 미국(14%), 베트남(7%), 태국(6%), 프랑스(2%)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액 추이를 보면 전체 수출 성장세보다 EU권역 수출 성장세(연평균 8%)가 두드러지며, 특히 프랑스는 EU 국가 중 매우 높은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파리 무역지원센터는 EU 복합식품 수입규정, 생산·가공시설 등록, 수산식품 안전성 기준 등 유럽시장의 높은 비관세장벽 대응과 우리 수산식품기업의 현지 정착 등을 지원하면서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예정이다.

앞으로, 파리 무역지원센터는 유럽 주요국에 대한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우리 수산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바이어 무역상담회를 개최하며, 국제박람회 참여를 지원하는 등 한국 수산식품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현지 대형마트, HoReCa(호레카 : Hotel, Restaurant, Cafe)시장 등 온·오프라인 홍보행사 개최 및 우리 수산식품기업의 현지 사무공간 지원 등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을 통해 유럽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파리 무역지원센터 개소식에는 홍래형 수산정책관과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를 비롯해 문승현 주프랑스 대사 등 현지 유관기관 관계자, 해외바이어 등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간 우리 수산식품의 시장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무역지원센터의 개소를 통해 수산식품 수출을 다변화하여 우리의 우수한 수산식품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파리 무역지원센터를 수출 거점으로 하여 우리 수산식품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수출가공진흥과	책임자	과 장	윤상훈 (044-200-5480)
		담당자	사무관	김기훈 (044-200-5484)



참고 1

파리 무역지원센터 일반현황

□ 센터개요

- (설립형태) 연락사무소(비영리목적) / '24. 11. 20(수) 개소(설립허가: '24.5.27)
- (소재지) 프랑스 파리(120 Av. des Champs-Élysées, 75008 Paris)
- (관할지역) 유럽 및 중동
- (인력현황) 총 2명(파견 1, 현지채용 1) * 추후 현지채용 1명 추가 진행

□ 주요업무

- 현지 특성에 맞는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맞춤형 수출마케팅 활동 및 개설국가 내 비관세장벽 등 애로해소와 수출 유망품목 발굴지원
 - (정착지원) 한국 수출기업의 유럽·중동 진출 시 초기 정착지원 수행
 - * B·I(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입주업체 지원: 현지 사무공간 및 업무지원 등
 - (마케팅지원) 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활동
 - * 수산식품 홍보·판촉·시판행사 및 K·Fish 홍보를 위한 앵커숍 운영
 - (해외시장개척) 바르셀로나 국제수산박람회 참가 및 무역상담회 운영을 통한 수산식품 인지도 제고 및 바이어 발굴
 - (맞춤형지원) 해외바이어 발굴지원, 통·번역 지원, 통관 및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 등 수출업체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사무실 전경



사무실 내부(조감도)

